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C2 EDUCATION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914) 946-2324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212) 947-8382(B)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판노)지과 콜롬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엘름hurst(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차완비) 베이사이드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 회계사 Young&Jullan,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여 이발 및 미용 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 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제1688호

2011,11,13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좋아!”
(마태오 25, 14-30)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 a x : (718) 405-0053



연중 제33주일

✠ 입당송

(예레 29,11,12,14)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려 한다.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대영광송>

✠ 제1독서

(홀륭한 아내는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31,10-13.19-20.30-31)

- 10 홀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11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12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 준다.
13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19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찾는다.
20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30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31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1.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는 네 손으로 벌어들여,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2.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3.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제2독서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5,1-6)

- 1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 3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뱀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5,4-5)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4-30)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14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
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말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말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말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겨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28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채송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선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1/13 8시	홍 명숙	함 봉국	함 경옥	이 경옥
11시	민 경구	엄 정환	손 숙	윤 정숙
11/20 8시	김 미수	홍 승표	홍 명숙	김 정옥
11시	이 회양	신 대철	신 춘희	박 정이

복사 : 이 종제 & 정무원 이 다운 & 김 현건

봉헌자 : 정철수 & 추성태 가족 다음주 : 장윤희&조현구 가족
헌금봉사 : 하늘의 문 Pr 다음주 : 사랑하올 어머니 Pr
운전봉사 : 김 민환 다음주 : 한 광희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신부님(생미사) : 임베로니카 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신준우(연미사) : 회장단 봉헌, 양다니엘[명상] 가족봉헌
김스테파노[치삼](연미사) : 임베로니카 봉헌
민필립[병재](연미사) : 윤헬렌[기애] 봉헌
박관훈(연미사) : 최안나[광자] 봉헌
부모님(연미사) : 박프란체스카[영숙] 봉헌
위령미사 : 평화의 모후 Pr, 상지의 옥좌 Pr, 하늘의 문 Pr
신비로운 장미나 Pr 봉헌
이근배(연미사) : 한프란체스카[희자] 봉헌
조상님(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봉헌
김그레이스[혜숙](연미사) : 손로라[승환] 가족봉헌
손로마노[종만](연미사) : 손로라[승환] 가족봉헌
채체인 기일(연미사) : 권의진 가족봉헌
허스테파노[문호](연미사) : 허미자 가족, 김알베토[재찬] 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성가

입당 : 미사 시작 (성가 337)
봉헌 : 예루살렘 내 복된 집 (성가 413)
성체 : 그리스도의 영혼(성가 172)
파견 : 이 세상 지나가고 (성가 462)

교회 소식



(1) 위령성월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부모형제들과 특히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저녁 기도 후 위령성월(기도서 37P)를 바치도록 합시다.

(2) 구역회

⑥ 청교도들은 하느님께 감사하고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⑦ 우리가정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하자

※ 모든 구역모임을 추수감사 11월20일(주일)에 하도록 합시다.

(3) 성지순례 소식

올해 에집트 사태로 취소된 제1코스(이스라엘, 에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2012년 1월31일-2월11일에 갑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아리랑 여행사 (212) 563-3350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무료 건강검진 소식

마운트 사이나이 심장 센터(Mount Sinai Medical Center Cardiac Catheterization Lab)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오늘(주일) 아침 9시부터 센터 1층에서 실시합니다. (접수하신 순서대로)

① 혈압 ② 당뇨병, 콜레스테롤 검사 ③ 심전도 검사 ④ 건강상담

(5) 추수 감사절 행사

추수 감사절 파티가 20일(주일) 11시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한해동안 받은 은혜에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청교도들과 인디언들이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칠면조와 호박, 옥수수를 나누어 먹었던 것을 생각 합시다. (각 구역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확대 사목회의 소식

확대 사목회의가 16일(수) 저녁8시 미사 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7) 본당 모임

- 꾸리아 월례회의가 오늘(주일)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빈센시오회 모임이 오늘(주일) 11시미사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건회 정기총회가 오늘(주일) 11시미사후 센터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성당뒷길 청소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령회 모임이 27일(주일) 11시 미사 후(1시30분) 센터 102호실에서 있습니다.
- * 이번달(11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동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599.00 (성인의 날 \$280, 위령의 날 \$298 포함)

교무금 : \$ 2,900.00 교육헌금 : \$ 1,910.84

이종언(11) 주봉길(완납) 한경수(11) 김동성(완납) 윤기운(완납)
로철진(완납) 박윤자(완납) 김형태(완납) 김신자(11) 김관희(11)
김문배(9-10) 최광자(완납) 신희원(11) 손대연(5-10) 최일환(10-11)
추성태(완납) 진경란(11) 김형남(완납) 최충규(2010완납) 박경순(10)

11월 위령성월에 묵상

일 년 12개월중 11월이 가장 스산한 것 같다. 거리에 나서는 누렇게 빛바랜 나뭇잎들이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쌓여있고, 창밖을 내다보면 그토록 울창하던 숲이 어느새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계절이 그래서인지 교회달력으로 11월은 위령 성월이다.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그런데 11월 첫날 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낸다.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리는 날이다. 사실 우리는 누가 하느님 나라에 갔는지 모르지만, 많은 영혼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을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 보다 크다(마태 11,11)고 하셨다. 그러니 하느님 나라에 간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인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구원받은 영혼들, 즉 알려지지 않은 성인성녀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들처럼 성인성녀가 될 것을 희망한다.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속히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즉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이토록 11월에는 죽음과 구원을 묵상하게 되는데 때 맞춰서 11월 초 아침 미사 참례 때 참 행복(마태 5,1-12)에 대한 복음을 듣는다. 어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참 행복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가는 지도라고 하셨다. 요즘말로 말하면 내비게이터라고 할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참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지 가르쳐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참 행복에 도달한다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인간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본능적인 욕구 넷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쾌락, 명예, 권력, 그리고 부이다. 쾌락이라고 하면 인간이 그 어떤 충동을 즉시 충족시키는 것이고, 명예는 사회적인 명성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칭찬받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권력 역시 무슨 정치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나 그 어떤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부는 물론 풍부한 재물이다. 우리가 이런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참 행복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느님 나라에 드러가게 된다고 한다. 이 11월에 우리는 앞서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도 성인이 될수있다는 희망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을 묵상한다.

우 몽은